

우리 학회 활성화 방안

한 만 청

현대의 과학발전은 각 분야가 상호 연관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학의 발전은 관련된 공학분야의 발전 및 보편화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가 최신의 의료로서 질병의 예방, 진단 그리고 치료를 할 때 그 대부분은 전기, 전자공학, Computer 분야, 기계공학, 재료공학 등등의 공학의 발전을 밑거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학회를 의학계와 공학계의 뜻있는 분들이 모여 창설한지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모든 회원 그리고 역대 회장단 및 간부진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업적도 남겼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아쉬웠던 점과 부족하였던 면이 많이 있으며 좀 더 학회활동이 활발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모든 회원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창설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학회의 보다 차원높은 발전을 위한 방안을 구상하여 보는 것은 뜻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첫째로, 회원수의 증가 노력이다. 현재 의학계 350명, 공학계 346명, 그리고 산업계 82명, 합계 778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나 이를 최소한 2배로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공업분야가 급속히 발달하는 추세에 비추어 산업계 회원을 200-300명 수준으로 빠른 시일안에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산학협동체제의 활성화이다. 우리학회는 의학자와 공학자간의 협동 내지 공동연구는 그

기들이 잡혀가고 있으나 이것과 산업계와의 연계 내지 협동체제는 그리 활발하지 못한 점이 있다. 앞으로는 의학-공학-산업계의 삼위일체의 협동 연구 및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학회재정을 튼튼히 하는 일이다. 우리 학회 재정은 회비, 특히 종신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바, 결과적으로 기금은 현재 전무하고 운영자금도 적자를 겨우 면하고 있는 형편으로 이것도 소수의 특별회원의 회비(찬조비)로서 충당하고 있다. 앞으로 일정액의 연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회원의 수를 대폭적으로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학회의 활동도 충실해지고 더 나아가서 기금도 확보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다.

네째로 학술연구활동의 활성화이다. 우리학회는 해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학회지도년 1-2회 발행하였고 회원들이 정부와 기타 기관에서의 연구비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질과 양 양면에서 더욱 활발해져야 하겠다. 우선 년 4-6회 학회지 발간을 목표로 삼아야 하겠다. 10주년을 기념하여 한일 합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제교류의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일본외에 다른 아세아지역 더 나아가서 구미 각국과의 학술교류도 증대시켜야 하겠다. 연구비는 학회차원에서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대형화 되어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다섯째로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가능성의 검토이다. 우리학회가 연차 학술대회때에 비정기적으로 소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를 한 바는 있다. 그러나 국내 모든 의료기기를 선 보이는 본격적인 전시회를 학술대회기간에 동일장소에서 2-3년에 1회라

<접수: 1989년 월 7일>

서울대학교의과 대학 방사선과학교실 교수

도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국내 다른 의료기 전시회도 있으나 우리학회의 특성을 살려서 최소한 국산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전시회의 개최를 시도하여 의학-공학-산업계의 융합을 도모하여야 하겠다.

이상 추진하여야 할 순서대로 5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모든 회원의 노력과 분발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그 결과 우리학회 창설 20주년이 되는 1999년 즉 2000년대 출발직전까지 얼마만한 성과가 이루어지겠는가를 우리학회 발전을 기원하는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을 갖고 기대하여 본다.